



## 미·중 경제전략대화: 중국위협론에서 중국책임론으로

지만수 북경사무소 소장 ([jmansoo@kiep.go.kr](mailto:jmansoo@kiep.go.kr), Tel: 86-10-8497-2870)

### 주요 내용

- ▣ 2006년 12월에 열린 제1회 미·중 경제전략대화는 ‘책임있는 중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
  - 그동안 미·중 경제간 상호의존이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미국내에서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중국의 위상 및 특수성에 대한 존중(respect)과 세계경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맞바꾸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임하고 있음.
- ▣ 본 대화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과도기 이후 중국의 개방일정 등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음.
  - 양국 사이에 매우 구체적인 경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매년 두 차례의 대화를 통해 후속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 ▣ 미·중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양자간 통상 이슈는 위안화 이슈를 넘어 훨씬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지재권, 환경, 에너지, 보조금 등 통상 이슈에 대해서 국익을 고려한 분명하고 독자적인 입장을 수립하여, 앞으로 미·중 간의 대결이 빈번해질 각종 다자간 및 양자간 논의의 장에서 이를 주장하고 관철할 필요가 있음.
  - 본 대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종 분야별 협력이나 한·중 FTA 공동연구 등 대화 채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중국의 post WTO 시대 변화에 한국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함.

## 1. 미·중 경제전략대화

- 2006년 12월 14일에서 15일까지 제1회 미·중 경제전략대화(U.S. 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음.<sup>1)</sup>
- 본 대화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질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 지금까지의 견제론이나 위협론을 탈피해 세계경제질서의 구축과정에서 중국을 책임있는 동반자로 대우하겠다는 이른바 ‘책임있는 중국’ 론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본 대화에는 8명의 미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양국 경제운영의 최고위 담당자들이 대부분 참석하였음.
- 미국측에서는 폴슨(Paulson) 재무장관, 구티에레즈(Gutierrez) 상무장관, 슈워브(Schwab) 무역대표, 버냉키(Bernanke) FRB 의장 등 장관급 8명을 포함한 50명의 대표단이 방중함.
- 중국측은 우이(吳儀) 부총리를 단장으로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 등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70여 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됨.
- 앞으로 매년 두 차례씩 경제전략대화를 지속키로 하고 2007년 5월 워싱턴에서 2차 회담을 개최할 예정임.<sup>2)</sup>

## 2. 미·중 경제전략대화의 배경

- 금번 미·중 전략대화는 중국경제가 급성장하고,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임.

1) 본 대화는 2006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시 미·중 간의 새로운 고위 소통기구로서 합의되었고, 2006년 9월 20일 폴슨 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시 우이 부총리와 「中-美 경제전략대화 메커니즘 가동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매년 2차례씩 양국의 수도에서 번갈아가며 고위급 경제전략대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함(『人民日報』, 2006. 9. 21 해외판).

2) 2007년 5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미·중 경제전략대화의 주제는 1) 혁신과 교육, 2) 미·중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임.

## 가. 중국의 성장과 미·중 경제관계의 심화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8년간의 경제성장을 통해, 명목 GDP 세계 4위, 교역액 세계 3위, 외환보유액 세계 1위의 경제로 성장하였음.
- 중국의 성장과 함께 미·중 경제관계도 빠르게 발전하여, 중국은 2006년(11월 현재) 멕시코를 추월하여 캐나다에 이은 미국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으며,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임.
- 투자 면에서도 개혁·개방 이후 2006년 10월까지 미국은 중국에 총 51,555건, 532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수행하여(실행액 기준) 일본에 이어 중국에 대한 두 번째 투자국이며, 세 번째로 많은 기술이전을 하고 있음.<sup>3)</sup>
- 그러나 양국간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민폐 환율의 변동을 중국이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갈등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중국은 2005년 이후 미국에 대해 매년 2,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sup>4)</sup> 이를 둘러싼 양국간의 통상분쟁이 빈발하고 있음.<sup>5)</sup>

표 1. 미국의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2006년 11월까지 누계)

(단위: 억 달러)

| 순위 | 국가  | 수출액   | 수입액    | 교역액    | 무역수지   |
|----|-----|-------|--------|--------|--------|
| 1  | 캐나다 | 2,121 | 2,797  | 4,918  | -676   |
| 2  | 중국  | 500   | 2,636  | 3,136  | -2,136 |
| 3  | 멕시코 | 1,241 | 1,832  | 3,073  | -591   |
| 4  | 일본  | 547   | 1,357  | 1,904  | -810   |
|    | 총계  | 9,479 | 17,061 | 26,540 | -7,582 |

자료: 미 상무성; KOTIS에서 재인용.

3) 중국 商務部新聞辦公室 新聞發布會(2006. 12. 15)

4) 미국측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3년 1,240억 달러, 2004년 1,619억 달러, 2005년 2,015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3년 586억 달러, 2004년 803억 달러, 2005년 1,142억 달러에 이름.

5) 이는 특히 인민폐 환율의 변동을 둘러싼 양국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슈머-그래엄(Shumer-Graham) 법안의 경우 인민폐의 즉각적인 대폭 절상이 없을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내에서도 미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미국의 낮은 저축률이며, 설사 인민폐가 평가절상된다 해도 대중 무역수지 적자나 미국의 전체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적임.
- 또한 중국의 국제수지 흑자 누적에 따라 늘어나는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되고 있어 달러 가치의 안정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보다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에 적절히 개입하고, 중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 나.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론: 미국의 전략적 태도 변화

- 이에 따라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장기적인 시각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는 ‘책임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 라는 개념으로 집약되고 있음.
-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라는 개념은 2005년 9월 당시 국무차관이던 로버트 쥘릭(Robert B. Zoellick)의 의회증언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에서 비롯된 것임.
- 이 증언에서 쥘릭 차관은 미국의 과제는 중국을 국제경제시스템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국과의 장기적 동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
- 즉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련과는 달리 1) 반미적인 이념을 전파하지 않고, 2) 스스로를 민주주의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3) 자본주의와 투쟁하고 있지 않고, 4)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전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임.
- 따라서 더 이상 냉전시대의 대결적 관점이나,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론적 시각으로 중국을 보는 것은 유용하지 않으며,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21세기 세계경제 속에서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 쥘릭의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개념은 이후 2006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당시 공동성명에서 채택되었고, 미·중 양국의 정부, 학자, 싱크탱크 사이에서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음.

- 세계경제질서 속의 주요한 '이해관계자' 라는 표현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지위상승과 미·중 간 상호의존이라는 현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동시에 '책임있는' 이라는 조건 속에는 국제적인 경제질서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 뿐 아니라, 인권보호, 평화애호, 민주주의의 발전 등 다양한 내용을 부여하고 있음.<sup>6)</sup>
- 이러한 개념하에서 미국의 중국정책의 방향은 중국을 세계경제의 책임있는 동반자로 유도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본 대화는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2.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시각과 대화 방식의 변화

| 분야     | 과거                    | 향후                               |
|--------|-----------------------|----------------------------------|
| 기본 시각  | 경계 혹은 위협              | 동반자                              |
| 기본 이념  | 냉전논리, 세력균형론           |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
| 경제적 배경 | 중국의 개혁개방과 급성장         | 중국의 위상 인정,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 심화        |
| 대화 성격  | 글로벌한 규범의 수용을 일방적으로 촉구 | 광범한 협력 속에 각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 요구    |
| 대화 현안  | 무역불균형, 인민폐 절상, 지재권 보호 | 중국 국내 정책, 지재권, 환경, 에너지, 공정한 무역 등 |
| 대화 형태  | 분야별 대화, 일방적인 성명전 등    | 경제전략대화                           |

### 3. 전략대화의 주요 내용

#### 가. 양국의 기본 입장: 책임감과 존중의 거래

- 미국은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중국측의 책임감 있는(responsible) 태도와 노력을 강조한 반면, 중국 측은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대한 미국측의 존중(respect)을 요구하는 기본 구도 아래서 대화가 진행되었음.

- 폴슨 장관은 방문 직전 기고한 「중국와의 광범위한 대화(A Broad Dialogue with China)」

6) 미국내 보수진영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력, 패권추구의 포기 등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책임감을 중국에 대해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ex. Heritage 재단 등), 진보진영의 경우에는 인권, 환경, 경제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라는 글에서, 금번 방문에서 미국측의 의제는 1) 대규모 무역불균형 없는 지속성장, 2) 무역, 경쟁, 투자 영역에서 개방정책의 지속, 3)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문제의 개선 등 3가지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나아가 구체적으로 미국은 본 대화에서 무역수지 흑자 감축, 통화 유연성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명하였음.<sup>7)</sup>
- 반면 우이 부총리는 ‘중국의 발전 경로’ 라는 제하의 모두(冒頭) 발언을 통해 중국이 처한 현실을 이해시키고 중국이 당면한 국내의 경제적 과제들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함.<sup>8)</sup>
- 우의 부총리는 주제 발표문에서 양국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거대인구를 가진 발전도상국으로서 중국 국내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였음.
- 이는 미국측이 중국을 경계하거나 중국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중국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해줄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됨.

## 나. 주요 토의 내용: 광범위한 토의와 구체적 사업

- 첫날 회의에서는 5개 의제와 11개 주제에 관한 전체 대표단 사이의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즉 ‘중국의 발전 경로와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 이라는 전체 주제 아래 ‘도시농촌간 균형발전’,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무역과 투자의 촉진’, ‘에너지’,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등 5개 주제의 11개 소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 짐.
- 중국경제의 현실을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중국측의 의지를 반영하여 일단 많은 분야에 관한 솔직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됨.

7) Paulsen(2006. 12. 11), "A Broad Dialogue with China," washingtonpost.com.

8) 吳儀(2006. 12. 15), 「中國的發展道路」, 미·중 경제전략대화 기조발제(keynote speech), 여기서 우의 부총리는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경제 건설임을 강조하고, 특히 중국은 신형공업화를 통해 효율위주의 성장, 내수의 확대, 지역간 균형, 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환경보호 등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고위급 토의와는 별도로 회의 기간 중 매우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가 이루어졌음.
- 정식 회의 개최 직전 미국 상무부 장관 구티에레즈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이샤오쥘(易小准)이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 사이의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졌음.
  - 이들 계약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제품의 수출입과 동시에 유통 및 통신 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중국 입장에서는 항공관련 제품 등 수입이 여의치 않던 첨단기술 제품의 수입임.

**표 3. 미·중 경제전략대와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 계약**

| 계약      | 성격                    | 내용   |
|---------|-----------------------|--|
| 항공기엔진   | 미국: 수출<br>중국: 첨단제품 수입 | 중국 상해항공이 3억 달러 상당의 American General Aviation의 엔진을 구매하여 보잉사에서 구매하는 항공기에 장착하고 2.5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 계약도 체결 |
| 비행장 설비  | 미국: 수출<br>중국: 첨단제품 수입 | 중국 서주공항이 미국 Oshkosh사의 소방차 등 공항용 장비 구매 결정   |
| 홈 데포 진출 | 미국: 중국 유통시장 진출        | 미국 홈데포가 중국의 저명 가구체인망(家世界)을 인수(구체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 인터넷 사업  | 미국: 수출<br>중국: 첨단제품 구입 | 중국 망통(網通, China Netcom)이 미국 Verisign 및 MII와 인터넷서버 구매 및 운영 계약                                       |

자료: 『經濟觀察報』 (2006. 12. 18); 財經 인터넷 판 등 중국언론 종합.

- 양국은 대화를 통해 향후 6개월간 중점 사업을 확정했음.
  - 즉 전략대화의 틀내에서 1) 고부가가치 혁신형 서비스업 발전 및 의료개선에 관한 논의 지속, 2) 양자 투자대화 개시 및 양자 투자협정의 타당성 논의, 3) 투명성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4) 자원 및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 또한 기존의 미중상무합동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 中美商務聯委會) 틀 내에서 1) 하이테크 교역 확대, 2) 지적재산권보호, 3) 시장경제 지위 인정 문제, 4) 구조개혁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함.
  - 또한 기타의 논의들을 활용하여 1)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2) 개인여행과 비즈니스 활동의 촉진, 3) 개발원조 및 다자간 개발은행대출 등 양자 협력을 강화키로 하였음.

- 또한 중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사무소를 개설키로 하고, 미래에너지국제협력 (FutureGen International Partnership, 未來發電國際伙伴計劃)의 참여, 미국의 대중수출 수출금융원활화 협정 체결, 2007년 1월 쌍방 항공서비스 협상 재개 동의, 중국의 범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 합의를 이루었음.
- 또한 양국은 WTO 가입 과도기 종료 후 중국의 서비스업 추가 개방 과정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음.
- 대화 기간 중 중국은 8~10개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經濟觀察報 12. 18),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및 경쟁기제 도입 문제를 다루는 양국간 공동 작업 반을 설치하여 향후 협력키로 함(『新京報』 12. 16).
- 또한 미국 에너지부와 중국 과기부는 「에너지효율과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분야 협력 의정서」를 체결함.
- 양국이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자동차 기술, 태양력,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4. 경제전략대화의 의의

- 본 대화는 미국과 중국이 21세기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sup>9)</sup>

##### 가.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으로 표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양국의 대결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조정하자는 데 양국의 입장이 모아졌음.
- 이때 양국의 협력은 양국간 무역 및 투자협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

9) 부시 미 대통령은 2006년 9월 본 대화의 의의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이며,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중요성과 전면적인 양자 경제협력 틀의 필요성'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과 합의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음. "President's Statement on Cre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2006. 9. 20), [www.whitehouse.gov](http://www.whitehouse.gov).



끝 향후의 발전모델이 전 세계 경제 및 미국경제의 이익과 조화되도록 만들자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

- 즉 세계경제의 균형을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종합(synthesis)이 시도되고 있는 것임.
- 가령 풀슨 장관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논의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제전략대화는 그러한 대화채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채널로서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예를 들어 1) 부처간 협상들이 합의를 달성하거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도적 투명성과 법률에 대한 존중(법치)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2) 변동환율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3) 중국이 수입을 늘리고 무역수지 흑자를 완화하려면,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성공하여 이를 통해 민간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4) 에너지 문제는 중국의 가격개혁이나 환경오염 문제 등 훨씬 광범한 문제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sup>10)</sup>
- 즉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 경제발전 단계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인민폐 절상 등 일방적 압력을 위주로 한 대중정책을 지양(止揚)하고, 중국의 장기 발전전략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와 조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 단순히 인민폐 절상을 요구하던 미국의 입장이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나 사회안전망 강화 등 중국의 국내적 과제들과 연결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 나. 미국의 경제적 실리: 중국의 post WTO 시대를 선점

- 시기적으로 정확히 중국의 WTO 가입 의무 이행의 과도기 종결과 동시에 개최된 본 대화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post WTO' 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실리를 얻었음.

10) Paulsen(2006. 12. 11), "A Broad Dialogue with China," washingtonpost.com. 또한 차오(Elain L. Chao) 美 노동부 장관은 양국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하는 중국의 낮은 소비가 중국인의 높은 저축성향과 의료 및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민영연금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통해서 미국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고 미국의 취업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新京報』 12. 16).

-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5년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관세인하뿐 아니라,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WTO 가입 약정의 이행은 2006년 말로 종결되었으며, 향후 중국은 WTO와의 약정에 구애되는 바 없이 독자적인 개방일정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됨(post WTO).
- 향후 매년 두 차례의 경제전략대화라는 틀을 통해, 미국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정책수립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였음.
- 향후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순서(sequence)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8~10개 분야에 대한 개방 약속 보도나, 서비스산업에 관한 양국 공동 작업반 설치 합의 등으로 이미 구체화되고 있음.
- 금번에 논의된 양자간 투자협정 타당성 검토, 에너지 및 환경문제 관한 공동연구, 「에너지 효율과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개발과 이용 분야 협력의정서」 등이 이러한 통로가 될 것임.
-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분야가 광범하게 협력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자유(free)무역으로 넘어 공정(fair)무역의 영역으로 중국과의 협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하는 것임.<sup>11)</sup>

#### 다. 중국의 이익: 존중과 인정에 기초한 쌍방향 소통의 틀을 마련

- 중국은 본 대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데 따른 미국 및 국제사회의 존중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전도상국이자 대규모 개방경제로서 중국의 발전경로가 가진 특수성을 인정받음.
-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인정받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를 과시함으로써 종래의 국제사회의 압력-중국의 반발이라는 틀에서 탈피함.

11) 본 대화에 즈음하여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에게 ‘자유무역은 더 이상 인기 있는 구호가 아니’며, 본 대화를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중상주의 및 보호주의, 지적재산권 침해, 스파이행위 등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주의를 환기할 것을 촉구하였음. Needham *et al.*(2006).

- 중국의 대외 무역과 투자가 내수, 사회보장, 도시화 등과 같은 중국내 경제 이슈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국 등에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의 논의에서 중국의 입장을 강화함.
- 우의 부총리의 기초발제에서 미·중 간 경제현안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전체가 중국경제의 특수성과 향후 발전전략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할애되었다는 데서 대화에 임하는 중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음.

## 5. 전망과 시사점

- 미·중 경제전략대화는 양국 관계 변화의 장기적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양국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대결보다는 협력에 기초한 양자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대미, 대중 전략의 수립에 있어 미·중 간의 대결구도를 전제한 접근보다는 장기적 협력구도의 형성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지향을 둘러싸고 세간에 유행하는 친미냐, 친중이냐 식의 단순한 논리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단선적인 입장정립(positioning)이 가능하지도 않음.
-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개념의 성립과정을 볼 때, 양국의 전략적 협력의 기초는 1) 경제적 상호 관련의 심화와 2) 지향하는 가치의 공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장기적으로 ‘가치’ 추구의 동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음.
  - 따라서 미·중이 주도하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장기적 ‘가치체계(시장경제, 인권·민주주의, 안보·평화, 환경 등)’의 수렴방향을 예상하고, 이와 함께 한국의 위상과 국익까지 고려한 독자적인 가치체제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경제협력 및 통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향후 벌어질 미·중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국면에서 우리의 입장

이 특정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함.

-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한국이 가진 원칙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슈별로 협력하게 되면 국제정치적 고려가 의사결정에 불필요하게 개입되거나, 우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특정 국가에 대한 배려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인민폐 환율 등 가격변수를 둘러싼 양국간 대립은 완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지적재산권, 시장접근기회 보장, 환경보호, 에너지효율, 노동문제, 보조금 등 공정무역 관련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이슈들을 둘러싼 미·중 사이의 충돌이 본격화될 것임.
- 2005년 이후 인민폐의 평가절상이 느리지만 지속되고 있음.
- 본 대화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미국은 대중 관계에 있어 상품수출 자체보다는 지적재산권 보호<sup>12)</sup>와 서비스업을 포함한 투자기회의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중국내 보호주의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대체에너지 사용 등 새로운 이슈들을 중시하고 있음.
- 이러한 이슈들은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라는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으며, 중국의 국제적 역할(위상과 책임)이 커짐에 따라 양자간 대화구조 속에서 뿐 아니라, 많은 다자간 틀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둘러싼 미·중 대결이 더욱 빈번히 펼쳐질 것임.
- 지재권, 보조금, 환경 등 새로운 이슈들의 경우 위안화 이슈와는 달리 한국 또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책 실시가 필요하며,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옹호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관련 입장을 정립해야 함.
- 특히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함.

12) 지적재산권 재중 미국 상의(AmCham)에 따르면, 소속 기업 중 55%의 기업이 지적재산권 보호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41%의 기업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모조품 생산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 결과 미국의 기업들은 상표, 특허, 지적재산권 등에서 연간 200~250억 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음. Needham *et al.*(2006. 12. 5), "Preparing for the 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WebMemo No. 1276; Heritage Foundation(2006), p. 2.

- 중국의 WTO 가입 과도기 이후(post WTO)의 개혁·개방 과정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에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006년까지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예정된(예측가능한) 관세인하와 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해왔으나, 2007년 이후에는 중국정부 독자적으로 추가개방 대상과 일정을 결정할 전망이다.
- 미국은 미·중 경제전략대화라는 틀을 이용해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의 post WTO 시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음.
- 한국 역시 중국의 추가 개방에 따른 사업기회를 활용하는 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1) 양측 고위급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경제협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 중국의 정책 변화와 관련되는 정보 입수 및 연구를 강화하고, 3) 미·중 간의 합의 동향에도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07년 진행될 예정인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나 기존의 정부간 대화채널 등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이 원하는 중국의 추가개방이나 제도변화를 중국측에 꾸준히 전달하여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전략대화’ 라는 경제협력 형식이 가진 실용성과 유연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sup>13)</sup>
- 미국과 중국은 일반적으로 정치·외교 분야의 논의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전략대화’ 라는 형식을 경제분야의 논의형식으로 채택하였음.
- 이와 같은 형식의 대화는 양자간 분야별 대화나 협상에 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전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FTA 등 강제성이 포함되는 협정에 비해서는 의제선택이 훨씬 자유롭고, 지체되는 경우에도 협상비용이 작으며, 여론의 영향도 작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략대화’ 형식은 주로 양측 사이에 협력에 관한 강력한 공감대와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13)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전략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중 사이에도 정치, 외교, 안보 문제 등을 협의하는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있음. 미·중은 2004년 11월 ‘전략대화’ 개최에 합의하여, 2005년 8월(베이징), 2005년 12월(워싱턴), 2006년 11월(베이징)까지 총 3회의 전략대화를 가진 바 있음.

표 4. 각 경제협력 대화 형식의 장단점

|    | 분야별 대화  | FTA 협상   | 경제전략대화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의제 선택</li> <li>• 집중적 논의가 가능</li> <li>• 지체 시에도 비용이 해당 분야로만 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범한 분야 포괄 가능</li> <li>• 협상의 기본틀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적 합의</li> <li>•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li> <li>• 집행에 대한 강제력이 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로운 의제 선택이 가능</li> <li>• 광범한 분야에 관한 토의 가능</li> </ul>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협력에 한정</li> <li>• 합의 지체 시 쉽게 대화 동력을 상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 과열 혹은 지체시 여론 악화, 기존협력 지체 등 부작용</li> <li>• 일괄타결에 따른 분야별 유불리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에 대한 고위급 간의 전략적 공감대에 주로 의존</li> </ul>               |

■ 한국은 중국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별 경제협력 채널을 갖고 있으면서,<sup>14)</sup> 동시에 2007년 한·중 FTA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앞두고 있음.

-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참고하여, 분야별 대화가 가진 유연성과 FTA 협상이 가진 전면성이라는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협력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즉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될 경우, 1) FTA 협상이 기존의 다양한 협력채널의 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2) FTA를 통해 다양한 진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즉 공동연구 단계에서 1) 본 협상기간을 최소화하고, 2) 협상기간에도 기존의 분야별 협력채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3) 협상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분야별 협력을 지속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충분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FTA 협상을 불필요하게 지체시킬 가능성이 크거나, 분야별 논의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슈는 굳이 FTA 협상의제에 포함시키지 말고, 원래의 대화채널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14) 이미 한·중 간에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산업자원부 관련 채널로만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 전자무역 협의회’, 표준 및 인증분야의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한·중 표준 적합성평가 공동위’, 기업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중 테크노마트’, ‘경영지원 교류회’ 등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자원 에너지 협력 현안 논의를 위한 ‘자원협력위’ 및 한·중·일 3국의 에너지협력을 위한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 등도 추진되고 있음.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구제기관 정례협의회’,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민관협의체 등도 운영 중임. 그 밖에도 재정부, 과기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연례 회담 등 협력채널이 가동되고 있음.